

란양(蘭陽)박물관 — 이란(宜蘭)을 알 수 있는 곳

란양(蘭陽)박물관은 이란현(宜蘭縣) 터우청진(頭城鎮)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바로 청나라 시대 우스항(烏石港, 오석항)이 자리하였던 옛 주소지입니다. 란양(蘭陽)박물관은 2010년 대만에서는 최초로 지방정부의 제의에 의해 18년 동안의 준비 작업을 거쳐 건립된 박물관으로, 이란(宜蘭) 지역의 문화 계승을 상징하고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문화의 이정표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란현(宜蘭縣) 지방정부는 생태박물관이라는 아이디어를 내 이란현(宜蘭縣) 전체를 하나의 박물관으로 간주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란양(蘭陽) 박물관은 이란(宜蘭) 인식을 위한 창구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란(宜蘭)의 대자연과 인문(人文) 환경에 대한 보존과 유지를 통해 동적 교육장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2001년, 대만에서는 최초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된 이란(宜蘭) 박물관가족협회가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약 60여 개의 가족관(家族館) 구성원들이 란양(蘭陽) 평원 일대에 한 줄로 묶여 있는 진주처럼 분포되어 '이란(宜蘭)은 하나의 박물관이다'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란양(蘭陽)박물관의 전시실과 외부로 이어지는 유사박물관 네트워크를 통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이란(宜蘭)의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란(宜蘭)이 하나의 박물관으로 영원히 살아 숨 쉬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www.lym.gov.tw

이란(宜蘭)의 문화 — 선사 시대 문화유적, 터우청 창고(頭城搶孤), 가자희(歌仔戲)와 사계절 축제 행사

1980년 이후, 이란현(宜蘭縣) 지방정부의 문화국에서는 '구조와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4대 유적 고고탐사' 작업을 전개하였고, 이에 의해 출토된 140만 점에 달하는 선사 시대 유물들이 란양(蘭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란양(蘭陽)박물관에는 7,000여 점에 달하는 대만 초기의 도자기, 그릇, 점지와 각종 민속판화 등의 일상생활에 사용되었던 문물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선인들의 영혼을 기리는 행사는 대만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창고(搶孤)전통놀이로, 음력 7월 마지막 날의 자정에 거행되며, 종교와 민속 그리고 육체적인 힘을 겨루는 기능을 겸비한 행사로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만의 민속축제 행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宜蘭)은 가자희(歌仔戲, 대만의 전통극)의 발원지입니다. 20세기 초, 가자희(歌仔戲)는 이란(宜蘭) 웬산향(員山鄉)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현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 보급된 대만에서는 유일한 원생극(原生劇)입니다. 1992년, 이란(宜蘭)은 전국에서는 가장 먼저 최초의 국립가자희단(國立歌仔戲團)인 '란양(蘭陽)희극단'을 설립하여 이와 같이 대만 현지의 특색을 갖춘 이 전통문화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란(宜蘭)은 사계절 테마행사를 해마다 창의적으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거행되는 '즐거운 이란(宜蘭)의 해'는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설날 전야에 시민들이 한데 모여 다양한 설음식을 나눠먹는 경축행사이고, 봄철에 거행되는 '녹색박람회'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행사이고, 여름철에 거행되는 '이란(宜蘭) 국제 어린이 전통문화 및 민속놀이 페스티벌(International Children's Folklore & Folkgame Festival, Yilan)' 행사는 1996년에 창설된 유네스코 산하 기구인 '국제민족축전기구협의회(CIOFF)'의 지표적인 행사이며, 가을철에 거행되는 양생문화(養生文化)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자오시(礁溪, 초계)은천 페스티벌' 및 고령층 노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이란(宜蘭) 불로(不老) 페스티벌'은 관광과 생활의 결합을 강조하는 행사입니다.



이란(宜蘭)의 생태 — 독특한 자연자원, 중요한 고래 구경 포인트

이란(宜蘭)의 자연환경은 매우 독특합니다. 치란산(棲蘭山, 서란산)의 회목나무숲은 산봉이 높고 계곡이 깊으며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채로운 생태환경이 형성된 곳으로, 대만에서는 가장 잠재력 있는 세계유산의 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오시(礁溪) 지역은 풍부한 수자원에 힘입어 풍요로운 온천자원이 형성되어 있으며, 수아오(蘇澳, 소오) 지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냉천(冷泉) 경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란(宜蘭)의 해안선은 그 길이가 101km에 달하고, 다양한 해안환경이 산호초 성장에 있어서 매우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란양시(蘭陽溪, 란양계천)가 바다로 흐르는 해구(海口) 지역은 매년 겨울철이 되면 장어를 포획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아울러, 궤이산 섬(龜山島, 거북섬) 인근에 위치한 해저온천 주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게(크랩)과에 속하는 '거북괴방게(학명: Xenograpsus testudinatus)'가 서식하고 있으며, 인근 해역은 대만에서 고래를 구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교통지도



위)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채색수탈문양점지
기하학문양도자기-
치우란(淇武蘭)유적문물
터우청창고
치란산(棲蘭山, 서란산) 섬
궤이산섬(龜山島, 구산섬)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기차: 동부간선 기차를 이용하여 터우청(頭城)역에서 하차한 다음 우스항(烏石港) 방향으로 20분 정도 걸거나, 이란현(宜蘭縣)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란양(蘭陽)박물관 또는 우스항(烏石港)에서 하차하면 곧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1, 5번 고속도로 경우 수도객운(首都客運) 혹은 거마란객운(葛瑪蘭客運)을 이용하여 자오시(礁溪)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란양(蘭陽)박물관 또는 우스항(烏石港)에서 하차하면 곧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2, 5번 고속도로 경우 국광객운(國光客運)을 이용하여 란양(蘭陽)박물관 또는 우스항(烏石港)에서 하차하면 곧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노선1: 台2선 134.5km 지점에 도달하면 곧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노선2: 5번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설산(雪山)터널을 지난 다음 터우청(頭城) 인터체인지에서 터우청(頭城) 우스항(烏石港) 방향으로 직진하여 台2선 134.5km 지점에 도달하면 곧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시간

목요일~화요일: 09:00~17:00(16:30 후 매표 마감)
휴관일: 매주 수요일(국경공휴일 경상 관람)
설날 전일과 당일
필요시 휴관일 별도 공지

요금표

목요일~화요일: 09:00~17:00(16:30 후 매표 마감)
성인 100원.....일반 관람객
단체권 80원.....성인 20명 이상의 단체
학생권 50원.....6~12세 미만 어린이, 학생(학생증 제시 필수)
우대권 30원.....20명 이상의 학생 단체(학생증 제시 필수)
무료입장권.....이란현(宜蘭縣) 주민(신분증 제시 필수)
신장 115cm 이하 또는 6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관람객(신분증 제시 필수)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 수첩 지참 필수, 보호자 1명 동반 가능)
내정부에 의해 인정된 명예 자원봉사자(지원봉사자 카드 제시 필수)

란양(蘭陽)박물관

26144 이란현 터우청진 청원로 3단 750호(宜蘭縣頭城鎮青雲路三段750號)
전화: 03-977-9700 팩스: 03-977-9300 E-mail : lymuseum@mail.e-land.gov.tw

아래)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민속판화-칠남마
진왕홍(陳旺紅)작가-
민족예술수상자
양아민가(오리훈제식당)

蘭陽博物館
LANYANG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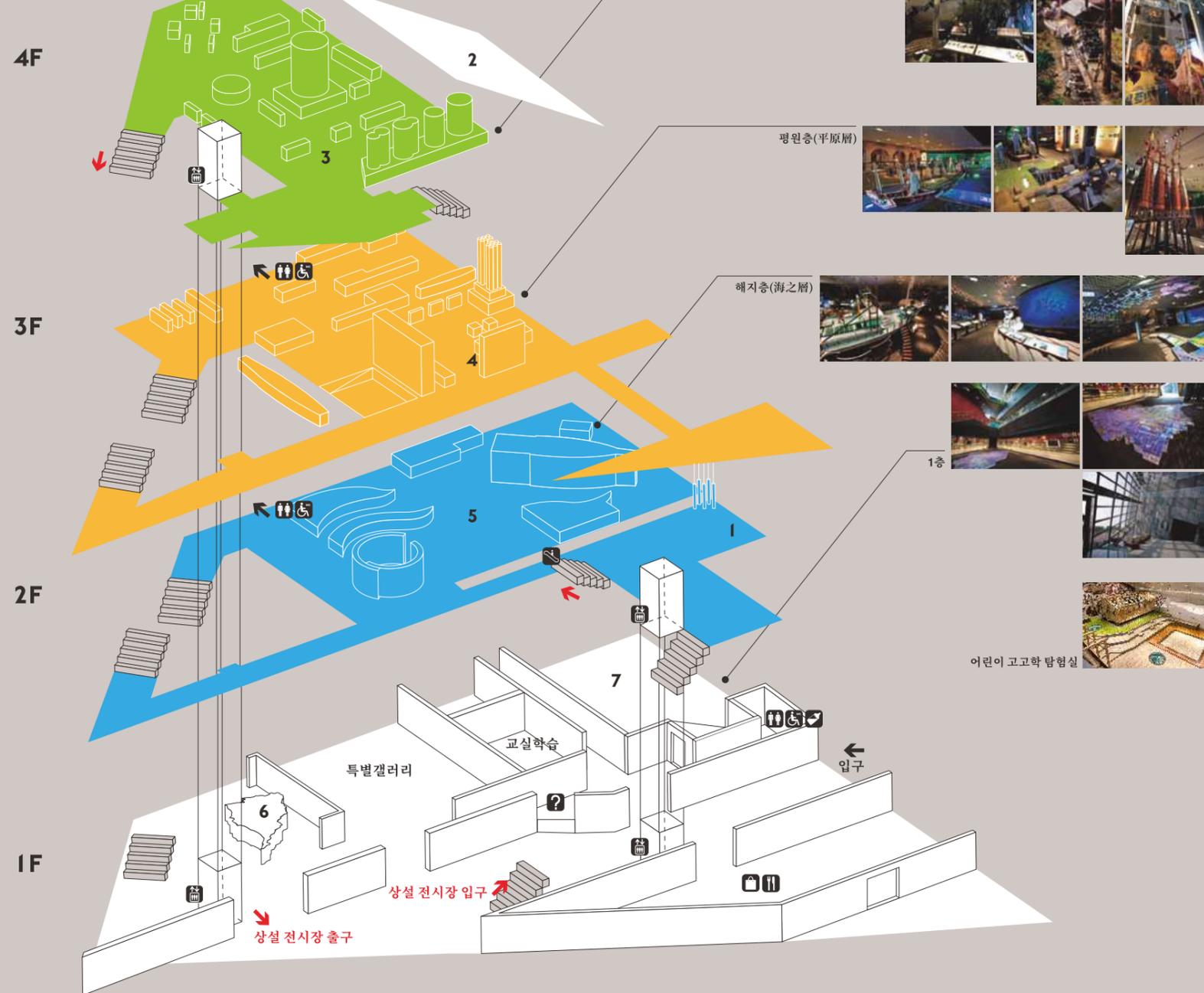
韓文 한국어

이란(宜蘭)은 하나의 박물관이다

본래 고대시대에 거마란(噶瑪蘭)이라 불리던 이란(宜蘭, 의란)은, 이 곳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거마란족(噶瑪蘭族, 갈마란족)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18세기 말, 한인(漢人)들이 켄란양(壠蘭陽, 간란양) 평원에 첫 발을 디디면서 건립한 첫번째 거집은 '터우청(頭城, 두성)'이라 명명한 곳으로, 이 곳은 청나라 시대 거마란(噶瑪蘭, 갈마란) 지역 주민들이 밀집하여 생활하였던 곳이자 상업이 매우 발달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금으로부터 이미 200여 년이 넘는 1812년, 이란(宜蘭) 지역은 거마란청(噶瑪蘭廳, 갈마란청)이 설립되면서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란양박물관계층지도



란양(蘭陽)박물관 — 천지와 공생하는 건축체

란양(蘭陽)박물관의 건축사상은 현지의 자연요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사 야오옌시(姚仁喜) 씨는 동북해안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면산형식에서 발상하여 건축체를 설계하였고, 비발디(Vivaldi)의 “사계절” 바이올린 협주곡의 선율에 따라 란양(蘭陽) 평원의 천변만화(千變萬化)한 들판을 상징하는 블록 형상으로 건축체의 외벽을 설계했습니다. 란양박물관은 2010년에 완공되어 운영을 개시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2010년 ‘극동건축상’, ‘대만건축상’ 우수상 그리고 ‘2012 국제건축상’ 등과 같은 각종 건축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에는 ‘리브컴어워즈(세계 살기좋은 도시대회)’ 결선에서 인조환경류 부문의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란(宜蘭)의 진열창 — 풍부하고 다양한 전시

란양(蘭陽)박물관의 전시 주제는 이란(宜蘭)의 특색있는 인문(人文)과 생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에서는 이란(宜蘭) 특유의 지리적 공간을 가산한 산, 평원 그리고 바다로 구성된 구조를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년 2~3회 마련되는 특별전에서는 테마에 따라 심층적인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의 주제는 건축의 특색을 접목시켜 4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전시구역은

1. ‘서전(序展)’ - 상호작용적 극장을 통해 이란(宜蘭)이 탄생한 스토리를 연출함.
2. ‘전경쇼 - 양망(仰望)의 기적’ - 전시장의 1, 2, 3층을 관통하는 경사진 천장을 이용 총 길이 19미터의 거대한 투영판을 조성하여 작은 물방울이 란양(蘭陽) 평원의 대지에서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 ‘산, 평원, 바다’를 주제로 구성된 각 층별 전시 내용을 하나로 연결함.
3. ‘산지층(山之層)’ - 예술적 수법을 통해 숲속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상적으로 연출하고, 중앙산맥과 설산(雪山)산맥이 태평양으로부터 불어오는 계절풍과 물의 기운을 받아 삼림과 생태를 풍요롭게 함으로써 ‘안개의 숲’을 형성함.
4. ‘평원층(平原層)’ - 이란(宜蘭) 평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특색을 갖춘 천맥종횡(阡陌縱橫)한 전주(田疇), 돌로 겹쳐있는 제전(梯田), 푸르른 양묘(秧苗), 황금물결 치는 곡식의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풍부한 수자원에 힘입어 조성된 이란(宜蘭) 평원에서의 생활 방식 그리고 지혜로운 농부와 원주민들의 생활 등의 특색을 전시함.
5. ‘해지층(海之層)’ - 사구(沙丘, 모래언덕) 진열장을 이용하여 사륜자(沙撈仔), 강물과 바닷물이 만날 때 조류(潮流) 또는 유수(流水)로 말미암아 모래나 바위가 밀리어 쌓여서, 수면(水面)이나 연안(沿岸)에 독 모양을 이룬 모래톱 현상을 재현하고, 날치 및 물새들로 이루어진 미술로 생태자원과 인문(人文)활동을 전시함.
6. ‘시광랑(時光廊, 시간 터널)’ -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과 영상들을 통해 이란(宜蘭)의 역사와 스토리를 기록함.
7. ‘어린이탐구역(兒童探索區)’ - 해양을 주제로 어린이들로 하여금 다채로운 해양의 보물을 찾을수 있도록 유도하며 크게 7개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내지도



주차장

관내에는 소형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 주차구역 및 신체장애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내 안내지도 참조)